
2019년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

2019년 8월



의왕시의회

■■■■■ 목 차 ■■■■■

I. 연수개요	1.
II. 국가별 일반현황 및 사회보장제도	3.
1. 노르웨이	3.
2. 스웨덴	6.
3. 핀란드	10.
III. 주요방문기관현황	14.
1. 베르겐사회복지기관(비미션)	14.
2. 스토라 스콘달(구리고덴) 노인요양원	18.
3. 에스 포 시티(시청 가족사회과)	22.
4. 칼라 사 타마 스마트재생 도시	26.
IV. 제언(시사점)	29.
V. 출장을 마치며(개인보고서)	33.
1. 윤미근 의장	33.
2. 이량이 의원	36.
3. 윤미경 의원	40.
□ 참고문헌 및 출처	44

2019년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의왕·광명시 의회가 연합으로 복지선진국가를 방문하여, 다양한 선진 사례를 비교체험하고, 양 의회간의 교류를 통해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국외출장 보고서임

I 출장개요

○ 출장목적

- 북유럽 3개국의 선진분야 벤치마킹으로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제고
- 단순 벤치마킹이 아닌, 여성, 아동, 노인 복지 시설 방문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 개발
- 2개시의회 합동연수로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교류의 장 마련

○ 출 장 국: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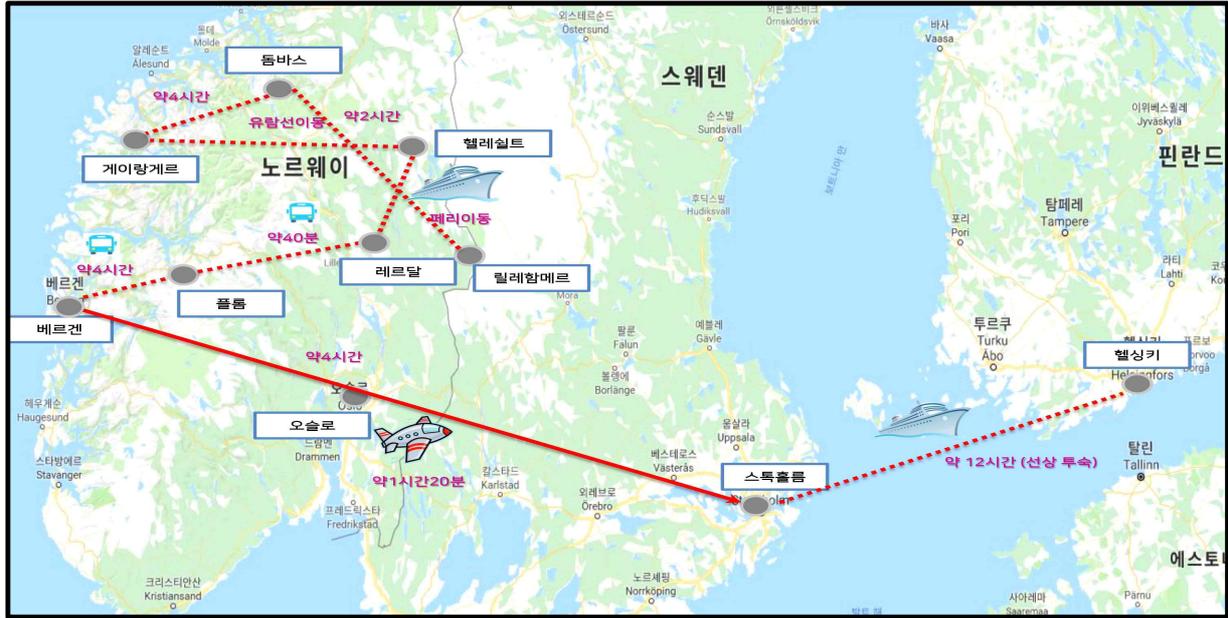
○ 출장기간: 2019. 8. 7(수) ~ 2019. 8. 16(금) 8박 10일

○ 작 성 자: 윤 미 근 의장

○ 출 장 자

구분	직위	성명	비고
의왕시	의 장	윤 미 근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윤 미 경	
광명시	의 장	조 미 수	
	부의장	이 형 덕	
	의 원	한 주 원	

○ 이동경로 및 세부일정



○ 이동경로 및 세부일정

날 짜	연수일정구 간	연수일정	비고
1일차 8월 7일 (수)	노르웨이 (베르겐)	인천→헬싱키→베르겐	
2일차 8월 8일 (목)	노르웨이 (플롬→레르달)	▶(공식방문) 베르겐사회복지기관 ▶출장간담회(방문기관 검토)	
3일차 8월 9일 (금)	노르웨이 (리얼란드→돔바스)	▶노르웨이 문화체험 - 빙하박물관, 게이랑에르 피요르드, 유람선 ▶출장간담회(방문기관 착안사항 토론회 및 운영방향 토의)	
4일차 8월10일 (토)	노르웨이 (릴레함메→오슬로)	▶공공시설 및 문화체험 - 오슬로 시립 공공도서관 및 카르요한거리 ▶출장간담회(노르웨이 복지정책 토론회 및 내용검토)	공휴일
5일차 8월11일 (일)	노르웨이 오슬로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탐방 - 오슬로시청 및 정부청사 방문, 시내공공시설 트램 투어	공휴일
6일차 8월12일 (월)	스웨덴 (오슬로→스톡홀름)	▶ 항공이동(노르웨이→스웨덴) ▶ (공식방문) 스톡홀름 노인요양원 ▶ 스톡홀름 문화탐방	
7일차 8월13일 (화)	스웨덴 (스톡홀름)	- 시청사, 대성당, 감라스탄 구시가지 등 ▶ 크루즈이동(스웨덴 → 핀란드) ▶ 출장간담회(스웨덴 복지정책 토론회 및 내용검토)	
8일차 8월14일 (수)	핀란드 (헬싱키)	▶(공식방문)핀란드 espoo시청 가족사회과 ▶(공식방문) 헬싱키 스마트재생 도시사업	
9일차 8월15일 (목)	핀란드 (헬싱키)	▶ 헬싱키 문화탐방 - 원로원 광장, 암석교회 ▶출장간담회(출장 종합 토론회 및 내용검토)	
10일차 8월16일 (금)	헬싱키→인천	도 착	

II

출장 국가별 일반현황 및 사회복지제도

1

노르웨이

□ 일반현황



- 언어: 노르웨이어
- 면적: 32만km² (한반도의 1.46배)
- 인구: 5,359백만(세계118위)
- GDP: 4,414억달러(세계 28위)
- 1인당GDP: 82,372달러(2018년기준)
- 종교: 루터복음교 74%
- 출산율: 1.82명(2015년기준)
- 글로벌경쟁력지수: 16위

가. 정치

○ 현황

부패인식지수	85점	2018년 세계 3위
언론자유지수	8.79	2016년 세계 3위

○ 노르웨이는 1905년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스웨덴에서 분리 독립, 덴마크의 왕자였던 칼(Carl)을 호콘 7세(Haakon VII) 국왕으로 추대한 이후 입헌군주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1814년 5월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후 최초로 헌법을 제정하면서 헌법상 독립. 1814년~1905년간에는 스웨덴과 연합을 형성하였다.

○ 헌법은 1814년 5월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입헌군주제를 바탕으로 내각책임제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체제를 유지, 노르웨이의 현행 제도적 관행은 영국과 유사하다.

나. 경제

국내총생산 (GDP)	1인당 GDP	경제성장률 (%)	총인구 (천명)	실업률 (%)	소비자물가지수	인터넷 이용률(%)
398.8	75505	1.9	5305	4.2	114.6	96.5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2017년 기준)

- 현재 5개의 북유럽 국가 중 경제적으로 가장 윤택하고 살기 좋은 국가다. 70년대에 북해에서 유전이 터져서 손꼽히는 석유 수출국으로 올라섰으며 거기에 인구까지 적어서 인구당 돌아가는 자원량도 많다.
- 전 국토의 겨우 3% 정도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며 산업인구의 11.9%가 제1차 산업에 종사, 식량은 자급자족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어업은 활발하여 대구·청어·정어리 등의 어획고는 세계 수위를 다룬다. 1971년부터는 북해 유전이 개발되어 1975년 산유국 대열에 진입, 수력발전과 어류 및 산림·광물자원이 풍부하다. 현재 세계에서 제7위의 무역액, 상선보유는 세계 제4위로서 세계 제9위의 해운 수입을 올리고 있다.

다. 사회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 특징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인 국가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 시행, 저소득층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동등한 대우를 보장,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공공지출에 사용할 만큼 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평등의 실현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

- 1997.2월 “국가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제정을 계기로 노르웨이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인 국가보험제도(National Insurance Scheme)가 시행되었다. (수혜대상) 12개월 이상 노르웨이에 거주한 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가 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음.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고용되어 노르웨이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도 동 혜택에서 제외

(혜택 종류) 고령연금, 실업수당, 가족연금, 장애수당, 의료 혜택(질병보험, 재활수당 등), 출산·육아 휴가, 영유아 수당 등

(재정 확충) 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주가 납부하는 세금 및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해 국가보험제도의 재원 마련.

※ 근로자와 자영업자(8.2%, 11.4%), 고용주(14.1%), 정부(25%)

○ 사회보장

(고령연금) 현재 법정 퇴직 연령은 67세이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70세까지 근로를 지속하며 연금 포인트 적립 가능.

- 인구 520만 명중 80만 명이 고령연금 수령자(사회복지 비용의 40%)

(가족연금, Survivors' Benefits)

- 배우자 연금 : 67세 미만의 미망인에게 지급

- 자녀연금 : 부모 모두 사망한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

(실업수당) 근로 시간이 50%이상 감소,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과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일정액 보전, 수당지급 기간은 기본적으로 최소 78주(15년)에서 최장 2년까지 가능.

(장애수당) 장애 수당은 기본수당, 재활·치료수당(attendance benefit), 일시 장애 수당 등으로 구성

- 기본수당은 장애 등급을 6등급으로 나누어 지급

- 재활·치료수당은 장애인이 특별한 재활 치료나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지급되며, 장애 정도를 4등급으로 나누어 지급

- 일시 장애 수당은 장애로 인하여 근로 능력이 50% 이상 영구적으로 하락한 18~67세 근로자에게 지급

(질병보험) 국가보험 가입자는 의약품 구입 및 입원비 포함 대부분의 치료비를 무상 제공받지만, 병원 이외의 기관에서 받는 일반치료나 특수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정 부분 개인 부담.

※ 연간 의료비 개인 부담 상한선을 의회에서 책정, 지출액이 상한선을 넘을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치료비는 무료

(재활수당, Rehabilitation Benefits) 질병으로 인해 매월 수당을 받던 대상자가
기간의 만료로 수당 지급이 중지된 경우, 일정 비율의 수당 지급

(출산휴가)

- 최대 59주의 유급 출산 휴가, 42주간 임신 전 근로소득의 100%를 보전,
43주부터 59주까지는 임신 전 근로소득의 80%를 보전.

- 남성은 최소 4주간의 출산휴가, 배우자의 잔여 출산휴가를 대신 사용가능
(영유아수당) 1~2세 영아 및 보육기관에 다니지 않는 유아를 위한 보조금이
지원되며, 미취학 입양아에게도 적용됨.

(입양시 육아휴가) 15세 미만의 아동 입양 여성근로자는 최장 49주간의
육아휴가, 39주까지 임금 100%수령, 40주부터 49주까지 임금 80% 수령

(기타 수당) 편부모수당, 자녀 수당, 입양수당, 장례보조금 등이 있음

2 스웨덴

□ 일반현황



- 언어: 스웨덴어
- 면적: 4,474만km² (세계53위)
- 인구: 1,005만(세계89위)
- GDP: 5,547억달러(세계 22위)
- 1인 GDP: 5만 3,867달러(세계10위)
- 종교: 복음루터교, 가톨릭교
- 수도: 스톡홀름
- 출산율: 1.90(2015년기준)
- 글로벌경쟁력지수: 9위

가. 정치

- 정치·의회형태: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단원제

부패인식지수	88점	2018년 세계 6위
언론자유지수	9.23	2016년 세계 10위

- 스웨덴은 입헌군주국으로 상징적 국가원수 역할을 하는 국왕이 있다. 현임 국왕은 베르나도테 왕조의 칼 16세 구스타프이다.
- 입헌군주제 국가에서 국왕은 명목상 국정에 대한 여러 권한이 있지만 이를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않는데, 1975년 이래 스웨덴 국왕은 이러한 권한도 작다. 예를 들면 형식적으로 법안의 재가(및 공포)나 총리 임명권 등은 입헌군주국에서도 대체로 국왕의 권한이지만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의회와 내각이 결정한 대로 해줄 뿐인데, 스웨덴에서는 법안이 의회에서 가결되면 내각의 이름으로 공포되고 국왕의 재가가 필요하지 않으며, 총리도 의회 의장이 임명한다

나. 경제

국내총생산 (GDP)	1인당 GDP	경제성장률 (%)	총인구 (천명)	실업률 (%)	소비자물가지수	인터넷 이용률(%)
538	53,442	2.3	9911	6.7	106.5	96.4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2017년 기준)

- 스웨덴은 세계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높은 나라이다. 대표적인 경제 강국 중 하나로 2017년 기준 1인당 GDP는 \$53,248이다. 널리 알려진 대표 기업으로는 볼보, 에릭슨, 일렉트로룩스, 이케아, H&M 등이 있다. GDP 대비 R&D 지출도 높은 편이며, 유럽 연합에 가입한 국가이긴 하지만 유로화를 쓰지 않고 자체 화폐인 크로나(Krona, 왕관을 뜻하는 crown에서 유래)를 쓴다.
- 스웨덴은 북유럽 제1의 광공업국이다. 철광석의 생산이 세계 10위 안에 들며, 큰 수출품이 되고 있다. 대신 석탄이 별로 생산되지 않아 많이 수입하는 형편이다. 자동차, 기계, 철강 공업이 발달하였으며, 이 제품의 수출량이 큰 편이다.
- 무역 상대국은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영국, 미국 등이다.

다. 사회복지

사회복지제도 특징

‘요람에서 무덤까지(from cradle to grave)’ 라는 표현처럼 세계 제1의 복지국가임을 자처, 사회복지제도의 기본 목표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식량, 주택, 기본생필품 등에서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질병이나 실업 등의 고통에 처할 경우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

○ 복지현황

(복지재정) 국가의 전체 예산 가운데 약 3분의 1을 사회복지 비용으로 지출함. 세계 최고의 복지 수준을 제공

(사회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자녀수당, 주택보조금, 상해보험, 실업보험, 학업수당, 교육보조비 등

(연금제도) 국민기본연금, 퇴직연금, 아동연금(18세 미만 아동의 부모가 사망 시 지급), 적응연금(배우자 사망 시 지급), 미망인 연금 등

※ 1999년에 도입된 ‘신 연금제도’ 는 ‘평생소득 개념에 기초한 소득연동 차등 연금제’, ‘근로소득이 없거나 낮은 사람에게는 최소 소득 보장’, ‘자신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프리미엄 연금제 도입’, ‘조기퇴직 연령 인하(61세부터 가능)’ 등

○ 가족정책과 주택정책

(가족정책) 각 가정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대표적인 사례로 1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자녀수당을 지급, 자녀가 16세에 달하면 학비보조금을 자녀에게 직접 지급

(주택정책) 집이 없는 무주택자 또는 부양가족에 따른 주택보조비를 지급, 특히 무주택자들을 위한 ‘내 집 마련’ 의 기회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충실하게 제공

○ 노인 복지정책

(연 금) 전체 인구의 약 20%가 노령층, 정부는 연금제도의 실시와 노인 보건시설 운영 등으로 복지정책을 실천. 노인 복지를 위한 정부의 예산은 국내총생산약 16% 수준, 노령층의 수입원 비중은 연금 85%, 기타 연금보험, 자산수익 등의 순으로서 연금이 가장 많은 편

(의 료) 본인과 나라가 같이 부담. 1년에 진료비가 900크로나(15만원)를 넘으면 바로 '무료 진료카드' 가 나옴. 이 때부터 병원 치료비는 모두 공짜. 약값도 1800크로나(32만원) 이상은 내지 않음

※ 입원비는 하루에 80크로나를 별도로 냄. 노동자가 병이 나면 법으로 병가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병이 났다고 해서 해고되는 부당해고[4]가 없으며 생활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월급의 80%를 사회보험청에서 제공.[5]

○ 노동정책

(연대임금제) 노동조합과 자본가의 중앙협의로 산별 임금차별을 줄이고 있음. 또한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의 62%임. 즉, 스웨덴은 노동조합과 자본가가 같이 회사를 꾸리는 공동경영, 즉 연대임금제는 동일노동-동일임금을 적용함으로써 직장에서의 차별을 개선

(비정규직정책) 비정규직의 비율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차별이 낮음. 스웨덴의 비정규직은 15%이며, 정규직의 80%를 받음.

(퇴직자) 1년동안 월급을 주고 있으며, 6개월치 월급을 한 번에 준다. 퇴직자들의 전직을 돕는 민간회사인 '노동자안정위원회' 에서 보충실업급여(처음에 월급의 80%, 그 다음에는 70%)를 지불

(실업보험) 실업기금을 통해 운영. 노동자는 취직과 함께 실업기금에 가입

※ 재원은 고용주가 55%, 노동자가 45% 부담

□ 일반현황



- 언어: 핀란드어, 스웨덴어
- 면적: 3,384만km² (세계64위)
- 인구: 556만(세계115위)
- GDP: 2,766억달러(세계42위)
- 1인GDP: 50,068
- 종교: 루터교 81% 그리스정교 11%
- 수도: 헬싱키
- 출산율: 1.77(2015년기준)
- 글로벌경쟁력지수: 11위

가. 정치

- 공화제, 의원집정부제 혹은 의원내각제, 단일국가, 단원제

부패인식지수	89점	2018년 세계 3위
언론자유지수	6.38	2016년 세계 1위

- 최고 입법기관인 의회(핀란드어: Eduskunta, 스웨덴어: Riksdag)는 단원제로 200명의 의원들로 구성,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며, 15개 선거구로 나누어 개방식 비례 대표제 선거로 뽑힌다. 의회는 헌법을 고치거나 내각을 해임시키거나 대통령이 발동하는 거부권을 무효화할 권한이 있으며, 유럽 최초로 보통선거를 실시했다. 1906년 보통 선거권이 실시된 이후 핀란드 국회는 우파인 국민연합당, 농민당과 좌파인 사회민주당, 좌익 연합 등의 정당이 지배해왔다. 핀란드는 소련의 영향력이 컸던 냉전 시대에도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 핀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정치적 부패가 적은 나라 중 하나로 평가
 - ※ 헌법에서 특이한 점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대법원에게는 어떤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

나. 경제

국내총생산 (GDP)	1인당 GDP	경제성장률 (%)	총인구 (천명)	실업률 (%)	소비자물가지수	인터넷이용률 (%)
251.9	45,703	2.6	5,523	8.6	110	87.5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2017년 기준)

- 핀란드는 제조업으로 경제부국이 된 나라이다. 노르웨이는 석유와 천연가스에 경제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고, 덴마크 역시 천연가스의 혜택을 상당히 보고 있는 반면, 핀란드는 외국에 수출할 자원이 딱히 없기 때문이다. 굳이 자원을 찾자면 제지 산업을 뒷받침할 풍부한 삼림 정도가 있을 뿐이다. 13년 기준 핀란드의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이는 후발 고소득 국가를 제외하면 독일, 일본과 함께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
- 노키아의 몰락, 1990-91년경 옆나라 스웨덴의 불황, 소련 붕괴 등과 맞물려 실업률이 20% 가까이 올라가는 경제 위기를 겪은 적이 있지만 GDP와 구매력이 증가하면서 2016년 현재 기준으로 1인당 명목 GDP는 42,654 달러, 국내 총생산량은 약 2,500억 달러이다.

다. 사회복지

사회복지제도 특징

높은 조세부담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복지의 전형적 모델로 소득수준 상관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실시, 아동·보육수당제공 등 높은 수준의 복지 제공

○ 주요복지 현황

(출산 및 보육지원) 출산율 1.9명, 적극적인 출산 육아지원 정책이 비교적 높은 출산율 유지에 기여

(산모출산 지원)

-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임신부는 11~15회 검사 무료, 출산 지원금 현금 140유로 또는 아기용품 출산 패키지(임신 154일 이후) 제공
- 출산 휴가 3개월간 공유주가 월급 전액지급, 이후부터는 연간소득의 75%(최대 32,892유로) 지급

(아동수당) 1948년 최초 도입, 현재 복지예산의 4%차지

- 성년 이전 17세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 수당 제공, 1인당 100유로 기준으로 자녀 2명시 1명당 110유로, 다자녀 3명부터는 141유로, 5명이상 182유로 제공
- 한부모 자녀는 1명당 46.6유로 추가 지급

(보육지원) 자녀들이 지자체 운영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시 매월 140유로 지원

※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 아동의 92.4%가 지자체 운영시설을 이용, 반면 우리시는 90%이상이 민간 보육시설 이용

- 3세이하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 매월 327유로의 보조 수당 지급, 1명 추가시 98유로 지급

(교육제도)

- 대학까지 무상교육(대학원 포함) 및 무상급식(대학 제외) 실시
- 대학생들의 1인당 교육비 연간 약 4,000유로, 생활 주거 지원금 월 52유로 지원

(기초사회보장) 공적부조, 실업수당

- 소득이 전혀없는 국민들에게 최저 식비, 의복비 등 최대 월 461유로 까지 생계보조비 지원(배우자는 85%)
- 노동자는 실업기금으로부터 실업 후 500일까지 월 평균 990유로 지원
- ※ 실업기금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는 국가가 500일까지 월 평균 500유로 지급

(의료보험) 중앙 지방정부가 분담하여 상주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치료 비용의 90%를 건강보험에서 보전,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의 경우 평균 소득의 70%정도를 수당으로 보전

(연금 및 노인복지) 연금 저소득층 노인에게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공적 국민연금과 18세 이상 근로자가 의무가입하게 되는 사적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

※ 국민연금 수령액 714유로, 기초연금과 기타 연금을 합친 개인당 평균 수령액은 약 월 1,400유로 수준

(양성평등 및 일·가정양립정책) 직장내 성평등 ‘Ombudsman for Equality’ 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지원

- 3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26주간의 유아휴직, 휴가기간 중 통상 소득의 70~75% 수준을 건강보험에서 보전
- 임신 및 출산전 정규직 고용계약을 가진 여성의 출산 후 직장복귀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권리
- 초등학교 1~2학년의 자녀를 둔 직장여성을 위한 방과후 특별활동 마련
-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또는 남성)의 근무시간을 주 30시간으로 축소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탄력근무제
- 남성과 여성이 각각 오전과 오후, 요일별 등으로 나누어서 자녀를 돌봄으로써 자녀 양육에 양성참여가 이루어짐

1 베르겐사회복지기관

가. 방문지 개요

- 설 립: 1855.1.22.(크리스티 아니 아 내부 선교회)
- 주 소: Kong Oscarsgate 54 / TEL: +47 553 07 200
- 목 적: 비영리 단체로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같이 호흡하며, 도시의 사람들이 존중, 정의 및 돌봄을 경험
- 현 황: 노르웨이 주위에 12개의 독립적인 재단으로 공식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40개 이상의 도시에 운영
- 직 원 : 풀타임 및 파트 타임 직원 1,800명, 자원봉사자 4,500명

나. 베르겐 비미션의 비전(vision)

- 홈리스(homeless), 마약 중독(drug addict), 매춘, 강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민들에게 쉼터 제공 및 교육과 치료, 교류를 통한 자립의 기회 제공
- 이민으로 인한 문화적 괴리감을 겪고 있는 이민자와 자녀들에게 적응해야 하는 사회의 문화를 체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 교류를 통한 새로운 언어 능력 향상, 직업교육 등을 수행하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민자로서 겪어야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을 수행하여 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중이다.
- 도시민들이 점점 홀로 생활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외부활동과 교류를 통해 소외감을 극복하기 위한 여건과 노년에도 외부에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무료로, 후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1인당 2인분의 식비를 부담하며 이용할 수 있는 식당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다. 주요활동

○ 카페, 레스토랑 운영

- 베르겐 비미션에서 운영하는 카페, 레스토랑은 누구나 방문하여 식사할 수 있는 개방된 곳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은 무료로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는 곳이나,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2명의 식비를 지불하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서빙을 하는 분들은 자원봉사자로, 각자 자신의 생업이 있음에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 아동(0~3세)을 위한 개방형 유치원 운영

- 노르웨이의 아동수당은 월 100만원으로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라도 아이들 간, 부모들 간 교류가 필요하므로, 개방형 유치원에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휴식도 취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하루 이용료 5,000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다른 부모들과 교류를 할 수 있어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다.

○ 아동(4~16세)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가정(multicultural), 난민(refugee-주로 무슬림) 등 가족들을 대상으로 사회 적응을 위한 정보제공, 청소년기 아이들의 방황과 부모와의 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 부모들에게는 언어수행 능력 향상과 직업에 대한 사전체험 제공으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라. 주요질문

질문1)

이렇게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는가?

답 변

운영비의 경우 정부보조금 70%, 민간후원 30%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곳 베르겐 비미션 레스토랑에는 10명의 자원봉사자와 2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이 업무를 다 처리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시설을 이용하는 인원 에 따른 정부지원금이 책정되어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없으며, 이러한 운영비 지원으로 난민이나 취약가구에 대한 정부 통계가 정확하게 산출되는 효과가 있다.

질문2)

자원봉사자들이 식당운영이나 다른 실무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에게 식비나 교통비 등의 지원이 있는가 ?

답 변

전혀 없다. 자원봉사는 단어그대로 봉사이므로 아무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는다.

질문3)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주로 누구인가?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전문분야 은퇴 후 재능나눔의 형태로 봉사를 하시는 분이 많다.

답 변

전문적인 분야에서 현재 직업을 가진 분들도 있고, 전문분야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관련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기관에 상당한 도움이 되며, 본인도 사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만족감이 상당히 높다.

질문4) 무료 식사를 제공하면 운영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답 변 현대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의 이웃에 관심과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2인분의 식비가 부담스럽지만 기꺼이 부담하는 시민이 많다. 또한, 식당운영 관련 인력을 충분한 자원봉사자들로 활용할 수 있어, 인건비 부담이 없으므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은 없다.

마. 관련사진



2 스토라 스킨달(노인요양원)

가. 방문지 개요

- 설 립: 1890년대 스웨덴에 뿌리(치매시설은 2013년 지음)
- 주 소: Herbert Widmans vag 7, 128 64 Skondal / Tel: +46 8 400 291 00
- 목 적: 소득과 차별 없이 지자체에 거주하는 시민 개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노력
 - ※ 연 령: 평균 65 ~ 85세
- 현 황: 지자체, 비영리법인, 영리법인 세 종류로 100여개 시설 운영

나. 주요활동

- (주택지원) 다양한 형태 및 대상으로 지원
 - 단기주택: 보육 및 보호(치매가 아님)에 근접한 65세 이상
 - 정신 질환자를 위한 주택지원
 - 치매를 가진 젊은 사람 주택(장기 및 시간제 주택지원)
 - 지적장애인 주택지원
 - 난민을 위한 주택지원
 - 16~20세 아동 및 청소년, 비행 청소년 위한 주택지원
- (IDA 모델) 작업을 통한 활동, 함께 관심사에 관해 토론·전시회·편의 밤을 보내거나, 발코니에서 저녁 식사 등 직접 참여로 개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유지 지원
- (관 리) 간호사, 작업 치료사, 물리 치료사, 활동 코치, 팀 매니저 및 운영 관리자가 24시간 대기, 고용비용은 지자체 세금으로 충당

다. 시설운영(구리고덴)

- 노인들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자체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노인가족근무자가 협의하여 입소자의

생활패턴에 따라 반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변화가 있을 때 마다 조정하여 개인의 자립과 삶의 질 유지를 목적으로 운영 중이다.

-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술치료 후 또는 치매 치료를 위해 단기 간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2주 정도 체류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16개의 단기 주거지를 확보하여 이 중 8개소는 치매치료 목적으로, 나머지 8개소는 외상치료를 위한 시설로 운영 중이다.
- 일반적으로 건강이 취약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정에 활동보조 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으나, 도우미 파견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건강상의 문제로 혼자 생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노인들을 위한 장기거주시설(permanent stay) 158개소를 운영 중으로, 노인 단독으로 생활할 수 없다는 인증(certificate)이 있어야만 입소가 가능하며, 입소결정은 지자체 공무원,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사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판단하고 있다.
-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입소비용은 개인의 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시설 운영을 위해 간호사, 작업 치료사, 물리 치료사, 활동 코치, 팀 매니저 및 운영 관리자가 24시간 대기 하며, 고용비용은 지자체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 이 곳 요양시설은, 식당, 거실, 프로그램 운영실 등 다양한 공동 생활 공간이 갖추어져 있고,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는 노인들을 위한 주거형태이지만, 개인공간은 원룸의 형태로, 실내에 주방, 화장실이 모두 구성되어 있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다.

- 특히, 외상환자를 위한 이동보조기구(personal lift)의 경우, 침실 위 천정에 리프트 조정 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침대와 주방까지는 어느 정도 혼자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두고 있어, 상체의 움직임이 가능한 노인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기구로 활용되고 있다.

다. 주요질문

질문1)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주방이나 화장실까지 갖춰진 독립적인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은 낭비로 보이는데?
답 변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공간은 제도적으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한 별다른 문제제기는 없다. 공동공간에서 식사나 휴식,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시간을 보내고 난 후, 개인만의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질문2)	사회복지사가 의사가 아닌데도 장기체류를 위한 입소를 판단할 수 있는가?
답 변	장기거주를 위한 입소대상자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의사의 처방전(prescription)이다. 이를 기준으로 적합한 서비스 연계를 위한 협의를 거치게 되고, 이 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와 지자체의 간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질문3)	현 시설의 직원규모와 시의 예산 지원은 어느 정도이며, 지자체 운영이 아닌, 종교단체나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노인보호 요양원이 있는가?
답 변	직원의 규모는 간호사 21명, 보조간호사 120명으로 24시간 보호가 필요하므로 3교대 근무로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개인별로 지원하는 예산은 단기 거주인에게는 월 2,700크로네(약 35만원), 장기 거주인에게는 월 2,060크로네(약 27만원)을 시설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과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종교시설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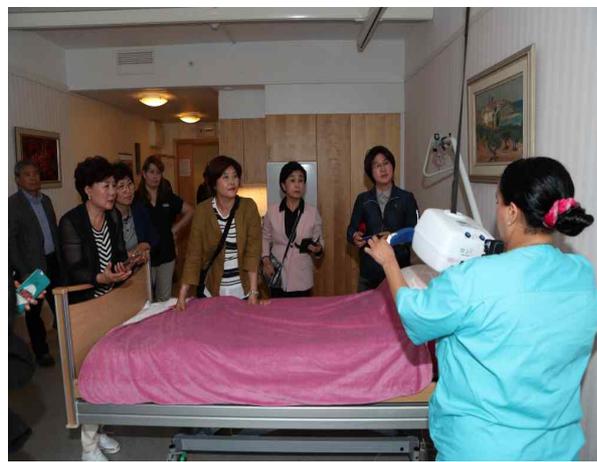
질문4)

치매나 정신질환의 경우 강제 입원이나 결박, 폐쇄 등 인권유린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가?

답 변

감금이나, 결박, 폐쇄 등은 모두 개인의 인권을 상당히 침해하고 있는 사항으로 절대 불가하다.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시설 거주인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보호 관리를 해야 하므로 가장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해나가며 보호하는 일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 관련사진



3

에스 포 시티(시청 가족사회과)

가. 방문지 개요

- 설 립: 1890년대 스웨덴에 뿌리(치매시설은 2013년 지음)
- 주 소: Siltakatu 11, Espoon keskus/Tel: +358 43 8244911
- 도시인구: 281,742 (2018년 7월 31일)
- 직 원 수: 14,319 명 (2018년 10월 31일)
- 5개의 도심 : Espoon keskus, Espoonlahti, Leppävaara, Matinkylä, Tapiola
- 면 적: 528km² (해역 : 216 km² , 호수 : 95, 해안 : 58km)
- 시 세: 18 %
- 실업률: 7.4 % (2019 년 5 월 31 일)

나. 사회복지 특징

- 높은 조세 부담을 바탕으로 한 보편적 노르딕 복지
 - ⇒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30.8%, 세계 2위(2016년 기준)
-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공공부문 및 지자체의 높은 역할 비중
 - 중앙정부: 국가 사회보험(의료보험·장애연금, 노령연금·실업급여 등)과 고등교육만 담당
 - 지 자 체: 지역주민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의료서비스등 500개 이상 법정 복지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책임
 - ※ 일정정도 자율적인 조세권을 갖고 지역주민에 지방세(16.5~21.5%)를 부과
- 여성 노령 노동력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생산적 복지모델 구축
 - ※ 여성의 취업률 77%(우리나라 56%)
 - ⇒ 여성만을 위한 보육지원제도가 아닌 양성(남·여) 모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정책 시행과 직장 성평등 음부즈만 제도 활용

다. 부서 역할

○ 가족사회과

- 가족복지 실현을 위해 아동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아동보호 및 가족 정책 수립,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절차를 위한 대비책 마련, 요보호 가족의 일상생활 케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 정책 수립에 있어, 아이를 중심에 두고, 아동의 욕구, 부모의 능력, 주변 환경을 다면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낙인감 없도록, 인터넷 접속이나 전화, 상담소, 학교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도록, 보호자의 이상행동 시, 보건소나 학교에서 직접 연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 아동복지사와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팀을 구성하여 가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판단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각 가정마다 전담사회복지사가 1명씩 전담하여 서비스를 연계중이다.
- 영유아(0~7세), 아동(7~16세)를 대상으로,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상담인력을 결정하고, 외부자원봉사자(대학 또는 전문교육을 마친 활동가, 직업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가족 사회활동가(social workers)들이 가족 문제 사전예방을 위한 전담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사회활동가들이 초기상담을 진행하고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모색·지원하고, 가족 전담사회복지사가 서비스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흐름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 무엇보다도, 보육,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갈등이나 반항 등으로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 부분까지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 아동보호 shelter (가정폭력 쉼터)

- 가정폭력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책임부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 사회복지사 1인당 30가구를 전담하고 있다. 쉼터는 정부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에 따라,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단위 인구당 시설수가 규정된 법규가 있어, 아동보호 shelter는 증가추세에 있다.
- shelter 운영 관련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사전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통해 위기를 분석하여 대응하고, Peer Group을 구성하고, 익명참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설 이용료는 무료이나, 생활비는 본인이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폭력피해자에 대한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적장치 안내 및 본인의 문제 해결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라. 주요질문

질문1) 가족복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답 변

가족문제를 해결하다보면 사전예방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막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전예방을 위한 전담 업무 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최근 들어 학교 폭력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실제 폭력이 증가하기보다는 이전보다 폭력 신고에 대한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질문2) shelter 거주 시 생활비가 부담스러운 가구에 대한 지원이 있는가?

답 변

주거비는 무상이나 생활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시의 다른 부서인 성인복지부에 연계하여 생활비 지원이 가능하다

질문3)

부부간의 갈등이나 이혼으로 부모가 아동의 보육을 기피하는 경우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회복지사 1인당 관리하는 가구는 어느 정도 인가?

답 변

아동보육은 부모의 의무이나, 부모가 거부하는 경우,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서비스나 상담이 필요함에도 거부하는 경우에 강제성은 없으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아동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사회복지사 1인당 관리하는 가구는 50가구 정도이며, 한 가구당 서비스 수혜기간은 평균 1년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마. 관련사진



4 칼라 사 타마 스마트재생 도시

가. 방문지 개요

- 주소(web): <https://www.uuttahelsinki.fi/fi/kalatatama> /TEL + 358 9310 79787
- 배경: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 근방에 ‘꿈의 도시’ ‘칼라사타마 (Kalatatama)’. 핀란드어로 ‘고깃배 항구’ 라는 뜻의 이 도시는 10년 전만 해도 버려진 항구였다. 하지만 헬싱키시가 넘치는 도심의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2010년 스마트 시티 개발에 나서면서 이곳은 크게 변화하여, 개발한지 8년이 지난 지금 3,000명의 입주민과 기업의 각종 첨단 기술이 공존

○ 현 황

- 교통수단을 모바일 앱으로 연결하는 ‘마스’ 는 버스, 지하철, 자가용, 렌터카는 물론 자전거와 오토바이까지 모든 교통수단을 연결해 이동의 혁신을 이루자는 취지의 프로젝트로 이는 미래 교통수단이 소유가 아닌 공유와 이동의 개념으로 발전함
- 태양열과 풍력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공용 도서관과 냉장고 컨테이너, 지하 파이프를 통해 시속 70km 속도로 폐기물을 수집하는 시스템
- 사무실, 학교 등 모든 공간을 대여 가능한 공유공간으로 만드는 플렉시 스페이스(Flexi Space)

나. 특징

- 리빙랩: 시민 중심의 개발 방식, 시민들은 리빙랩(Living Lab) 시스템을 통해 기업들이 개발 중인 기술을 직접 시험해보고, 기업들은 시민들의 피드백을 받아 기술을 보완해 나감. 또한 지역기업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지원 하에 이를 보완하는 혁신의 순환 고리를 구성
- 리빙랩 가치 : 살아있는 실험실, 우리 동네 실험실 의미
 - 스마트시티 구축 과정에 시민의 직접 참여가 가능
 - 시민·지역기업·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지역경제 모델을 구축
 - 지역에서 스마트시티 리빙랩 모델이 구축되면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

다. 주요질문

질문1) 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 리빙랩”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리빙랩은 사용자의 경험 및 수요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데, 칼라사타마는 실제 살고 있는 주민과 공무원, 학자, 시민 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혁신가 클럽(Innovator’s club)’이 수시로 만나 문제를 발굴하고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고, 시정부는 공사에 반영하는 구조로 운영합니다.

질문2)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마련 방법은?

대부분 헬싱키 시와 고용경제부에서 지원합니다. 핀란드 기술혁신 지원청(TEKES)의 위티시티 프로그램(Witty City Programe) 일부로 운영되며, 담당 부서는 헬싱키시의 도시개발경제계획센터입니다. ‘6개 도시전략’의 일부로서 시정부 자회사(FVH)와 협력·운영하여 3년간 총 예산은 약 90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문3) 위티시티 프로그램(Witty City Programe)라 말씀하셨는데 그 것이 무엇인가?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 및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시장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책을 위티시티 프로그램이라 합니다.

질문4) 칼라 사 타마에서의 스마트시티를 위한 추진 사업현황은 ?

스마트 미터링, 스마트 폐기물 서비스, 건강·웰빙센터, 미래 학교 등 16개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설계 및 운영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헬싱키과 더불어 에스포 반타 탐페레, 투르쿠, 오울루 6개 도시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진중입니다.

질문5)

아파트 내에 분리수거기가 많은데 폐기물도 스마트를 이용하여 처리하는가?

답 변

아파트 내에 설치된 분리 폐기물 수거기에 지하 파이프라인을 통해 70km/h의 속도로 폐기물 수집장으로 통합, 바이오폐기물은 토양화, 종이는 신문지 등으로 재활용하고, 판지는 종이자루, 가방등으로 재생, 기타는 전기 열생산 등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라. 관련사진



■ 북유럽! 사회적 연대의식과 높은 재원을 바탕으로 한 복지선진 국가 실현

- 북유럽은 사회복지제도를 가장 잘 실현하는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민들의 만족도도 상위에 랭크되어 있어 모두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할 만하다.
- 이러한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두고 북유럽의 핵심국가(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직접 체험하고, 복지시설을 방문하게 되면서, 그 사회의 바탕에 있는 공감대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다.
- 무엇보다도, 북유럽의 복지제도의 바탕은 높은 재원을 근거로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기는 하나, 본인 소득의 30~50퍼센트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 지역의 국민들은 세금납부 의무에 불만 없이, 현재의 구축되어진 권리를 충분히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 눈여겨 볼만한 점은, 향후 우리의 복지정책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과 복지서비스의 결정권이 복지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다는 점이다. 동일 조건의 대상자에게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다른 욕구를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진행하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팀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정해진 복지서비스 안에서만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는 현실이다.
- 또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인권유린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 규정 준수와 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올바른 인식으로 인해,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꺼려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으면서 케어를 받고, 독자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점은, 재원의 부담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 무엇보다도, 치매환자나 장애인 가족구성원으로 인해 가족의 생활까지 흐트러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상당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는 점, 재원낭비라는 목소리 없이, 국민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업무라는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이 부러운 면이었다.

■ 우리나라 낮은 재원이지만, 선진화된 정책 방향 지향 및 정책 수립

- 복지시설 방문을 통해서, 아동복지나 노인복지 등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북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정도의 사업진행을 추진해 왔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아동수당, 출산 및 육아휴직, 가정방문을 통한 노인돌봄서비스, 가정돌봄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사례관리사를 통한 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례들을 들 수 있다.
- 다만, 북유럽에서는 복지사업의 수혜자가 모든 국민이라는 생각이 근저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수혜자는 저소득이나 취약가구로 한정해서 생각하는 데 가장 큰 차이로 보인다. 이는 자원과 국토의 한계로 인해 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과, 복지는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수혜의 개념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그러한 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적은 재원이지만, 나름 효율성 있는 복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아동 양육수당과 노인 기초연금 지급 사업, 장기요양보험을 통한 노인 요양급여 제공 등으로 선별적인 복지에서 보편적인 복지의 혜택에 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 이제 우리는! 보편복지로의 인식 전환과 재정여건에 맞는 촘촘한 서비스 구상

- 우리나라는 북유럽과 비교하면, 복지예산이 상당히 낮으나, 이러한 여건에서도 충분히 검토하여 촘촘한 복지체계를 구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 베르겐 비미션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식당 운영을 접목해 보는 일도 의미있어 보인다. 사회의 취약가구를 위해 소정의 금액을 기부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기부금의 사용처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구는 무료로 식사를 하고, 기부하고 싶은 사람은 비싼 비용을 부담하여 식사를 하는 작은 기부문화를 실천할 수 있는 식당을 발굴하여 운영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여건과 관계없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 볼 수 있다.
- 현재 우리시에서는 미취학 아동을 위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아이들이 장난감에 빨리 싫증을 느끼기 때문에 성장 시기마다 장난감을 구입해 주는 부분을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워 하는 가족에겐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가장 운동 능력이 왕성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용품(스케이트, 스키, 안전모, 탁구, 테니스, 볼링)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도 구상해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더라도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성장의 동력인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품목을 시에서 구비해 필요한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 특히,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지원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수준에서 공공 보육서비스 강화, 산모 무료검진, 아동수당지급 확대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확대가 필요하다.

- 연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노인 요양시설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개인리프트 이동 레일이었다. 그네처럼 생긴 의자에 앉아, 리모컨을 조작하면 긴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레일을 따라 침대와 부엌까지 이동이 가능한 장치로, 하체의 움직임은 어려우나, 상반신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가능한 장애인이나 노약자라면, 스스로 이동하면서 자존감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후 요양시설에 도입하는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 결론적으로 북유럽과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실현은 재원의 차이와 사회 발전과정에 따른 인식의 차이로 인해 물리적으로 접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그간에 다양한 선진 복지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있어,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점차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복지 수요자의 욕구를 우선시하고, 서비스 결정에 수혜자를 포함시키는 구조를 구축함과 동시에, 우리 재정여건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꾸준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윤미근 의장

평소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어떻게 수혜자들에게 전달되는지 살펴 보았고, 우리 시 나름의 많은 복지예산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도 만족도가 높지 않고, 민원인들은 꾸준히 불만이 있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다. 북유럽의 경우, 개인들이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혜택을 누리며,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느끼는 부분에 대해 그 나라의 분위기나 시민들의 마인드를 통해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의미한 기회가 되었다

노르웨이에 도착하여,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느낀 인상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풍족한 자연환경(목재, 목초재배지, 수려한 자연경관)에 기인한 경제적인 여유가 느껴졌다. 가이드의 설명을 통해, 역사적으로 주변국과의 갈등도 있고, 다른 나라의 지배하에 있기도 했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정도의 전쟁으로 인한 폐허는 없었기에, 이후의 복구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 없이 차분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개인의 자본이나 자산 소유보다는 공공의 복지를 실현해 결국 시민 개개인에게 만족할 만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였기에 현재의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인상 깊었던 부분은, 노르웨이의 베르겐 시의 보겐항구(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로, 1,700년대 독일의 상인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상업 지구를 형성 하였던 상가(독특하고 지붕이 뾰족한 긴 목조건물)들이 길게 줄지어 있으

면서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이였다. 목조건물의 특성 상 세월과 기후에 따라 원형이 뒤뜰어지고 기울어가고 있었음에도 외부에 최소한의 골조만 덧대어 목조건물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었다. 낡았지만 화려한 외형으로 인해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 있었고, 특히, 상가의 뒤편으로 옛 선원들이 거주하던 공간도 그대로 보존되어 관람이 가능하고,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어, 젊은이들에게도 흥미로운 장소인 듯 보였다. 수 백 년의 세월을 이기는 목조건축물을 보면서, 오랜 우리만의 가옥, 초가집이나 기와 집, 장독대, 마을, 부뚜막 등 정겨운 단어들 이 떠오르며 약간의 아쉬움이 남았다.

보겐항구를 뒤로 하고 푸니쿨라 기차를 탑승하여 플뤼엔산 정상 을 달리면서 자작나무, 가문비나무 등 어마어마한 침엽수림의 군락지에 감탄하고, 수 백 개의 쏟아지는 폭포를 바라보며 천혜의 자연자원과 관광자원을 가진 이 나라에 부러움을 느끼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역시 인적자원밖에 없구나’ 라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다.

본격적으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시청 등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방문하면서 느끼게 되는 점은, 복지 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 복지제도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된다는 점, 내가 낸 세금이 나를 위해 쓰인다는 점, 젊어 열심히 일하면 노후의 내 생활은 국가가 보장해 준다는 점,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가 확실하다는 점 등이다. 또한, 국가의 정책결정에 여론이 영향이 컸는데, 실례로, 노르웨이의 피오르드를 거쳐 다른 시로 이동하기 위해 거의 대부분 배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는데, 우리나라라면 다리를 연결하여 이동권을 확보할 것으로 보였으나, 그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로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보니, 조금 불

편하더라도 모두 배를 이용해 이동한다고 한다. 느리지만 여유있다고 해야 할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후손들에게는 본인들이 누리던 좋은 환경을 그대로 물려주고자 하는 의지로 보이며, 미세먼지나 환경적인 요인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구를 위해서는 참 훌륭한 관점을 갖고 있다 할 수 있겠다.

복지시설에서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우리나라와 접목하여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북유럽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의 문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아직까지는 선별적인 복지혜택을 주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장애나 노령, 빈곤 등을 개인과 그 가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몇 배에 달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동의에 의해 지원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모든 취약한 가구에서 부러워할 만한 제도로 보였다. 역사적인 우여곡절과 분단된 현실, 주변국들과의 긴장 관계 등으로 경제적인 성장의 기회가 많지 않았던 우리로서는 복지사회로의 출발은 늦었으나, 점차 보편적인 복지(아동수당, 기초연금 등)를 확대해 가고 있는 정부정책에 따라, 우리의 인식이 점차 바뀌어 가고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고, 장애, 빈곤, 건강, 노령 등의 문제를 개인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으로 점차 발전해 갈 것이라 생각한다. 북유럽 국가 방문을 통해서 느낀 점을 통해 우리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쓰겠다.

북유럽을 다녀와서

이랑이 의원

2019년 08월7일(수) 커다란 부푼 꿈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걱정과 함께 북유럽 3개국 출장을 떠났다.

올 초에 가기로 했던 북유럽 출장을 국내 사정으로 인하여 가지 못하고, 이번엔 일본과 경제전쟁으로 인하여 불편한 마음이었지만 의왕의원 3명 광명의원 3명이 핀에어를 타고 헬싱키를 경유하여 노르웨이 베르겐 공항에 도착했다. 우리나라처럼 커다랗고 높은 빌딩은 없었지만 영어로 베르겐이라는 글씨가 커다랗게 돌에 새겨져 있는 거리를 전용차를 타고 사진을 찍으며 숙소로 향했다.

다음날 아침, 제2의 도시 베르겐의 보겐항구와 광장 어시장 푸니쿨라 탑승을 하고 고풍스러운 낭만을 가진 바다 조망을 보면서 자연의 신비함을 느꼈다. 산중턱에는 집들이 짝 차 있었고 전망이 좋고 조용하고 제일 높은 곳일수록 집값이 비싸다는 설명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정서를 느끼게 했다.

첫 공식방문지인 베르겐 비미션 시설을 방문했다. 여성 아동 마약중독 등 조그만 시설이었는데 인간은 아름답고 사람은 누구 나 다 함께할 권리가 있다는 글이 일상 적인 말이면서도 나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 곳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은 아픈 사람 위주로 일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도움을 주는 무료급식·숙박·건강진단을 10년~20년 전부터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종사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 단계적 일을 한다고 했다. 알콜 중독, 마약 중독 등 자립이 약한 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하루하루 체크하며 좋은 결과를 얻어 낸다고 하였다.

개인들이 기부를 많이 하고 봉사자도 봉사를 하면서도 커피 한 잔도 사서 먹으며, 어려운 사람이 먹고 있으면 소리 없이 계산을 미리 하고 나간다고 한다. 자원봉사자는 은퇴하신 분들이나, 자신의 생업이 있어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한다.

노르웨이 플롬에서 미르달 열차를 타고 레르달로 향하는데 창밖에 스쳐 지나가는 자연 풍경은 비가 오는 데도 해가 뜨고 빙하가 녹아 폭포수가 흐르는 광경이 신비로웠다. 피얼란드 이동하여 빙하 박물관과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요르테달 빙원의 한자락 멀지 않은 산 꼭대기에 하얀 눈 빙하가 조금씩 녹아 내리는 풍경 이었다. 게이랑게르 피요르트를 유람선을 타고 빙하가 흘러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돔바스에 도착하여 릴레함메르 스키 전망대를 올라가 거대하고 아슬아슬한 경기장을 내려다보면서 스키의 강국임을 인정 할 수 있었다.

또한 오슬로의 거대한 시립도서관은 보관된 서적이 많았고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행동들이 독서를 많이 하는 나라임을 알 수 있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오래된 신문을 스크랩해 자료로 볼 수 있게 입구에 나열해 놓았었다.

오슬로 중앙역에 트램을 타고 왕궁까지 가는데 시내를 가로 질러 버스차선과 교차하는 곳이 많았지만 버스와 사람들은 트램이 지나가도록 질서를 지켰으며 신호등, 횡단보도, 차선지키기 등 대중문화를 받아 들이는 준법정신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다.

바이킹의 나라 노르웨이를 잘 보여주는 3척의 바이킹 배 박물관을 관람했는데 몇 백년 만에 건져올린 나무배가 손실이 거의 없이 90%를 보존하여 건

저 올렸다는 설명에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다. 거대한 바이킹 배임을 과시하고 잘 보존되어 국가의 보물로 세계관광에 짝짤한 수입에 한몫하고 있었다. 비겔란의 조각 작품이야말로 대단한 조각들이 한 공원을 이루고 있었는데, 작품들의 형상마다 사람들의 삶과 사연을 담은 표현이 문외한이지만 감상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였다. 귀중한 유물과 몇 백년을 지난 건물들, 오랜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보전해 온 나라 사랑 정신의 결과가 아닐까 싶다.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이동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일면을 볼 수 있었다. 스웨덴은 복지와 성장을 실천한 선진 복지국가다. 이런 복지는 부유층은 많이 내고 저소득층은 적게 내는 누진제의 세금과 사회보장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사회보장 비용지출 순위는 질병 및 장애보장 34%, 가정 및 아동의 경제적 안정 28%, 건강, 의료 및 사회보장 22%, 퇴직연금 15% 순으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 지고 있었다.

연금제도는 우리나라처럼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제에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최저보증연금, 소득비례연금, 완전정립식 개인연금 3원화된 연금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눈여겨 볼 제도가 아닌가 싶다.

노인요양원(구리고덴)을 방문 하였는데 전에는 콧바가든 큰 농가였다고 했다. 담당자 쌤은 애바 스톡홀름시의 벨링구에 속해있으며 노인복지 행정업무담당 14개 구 중 하나에 속해 있다고 하였다. 의사가 치료를 필요로 했을 때 사회복지사 간호사 상담사가 진단을 내린다고 했다. 주로 상담하여 입소 퇴소를 하는 것도 지자체에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상담사들이 거의 결정을 한다고 했고, 사람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입 퇴소 케어를 받

는다고 하였다. 내부시설은 일시적으로 치료하는 입소자는 최대한 본인이 움직이면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오피스텔 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었다. 프로그램은 우리 나라와 비슷한 면이 많았다.

스톡홀름에서 핀란드 헬싱키를 향해 크루즈 탑승을 했다. 크루즈 선상 안에는 모든 시설이 다 되어 있어 쇼핑도하고 멋진 석양도 사진 한 컷 멋지게 찍었다. 다음날 헬싱키에 도착하여 우스펜스키 사원과 대성당, 암벽을 폭파해서 만들어진 암석교회를 돌아보았다. 암석교회는 참 신기했다. 주민들의 반대임에도 자연석을 이용하여 교회를 지었는데 관광지인 교회가 되어버렸다고 한다. 전화위복이다.

북유럽에서 하루하루가 더 해질수록 우리나라가 대단한 대한민국임을 깨닫게 한다. 자원도 없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세계의 강국이 되었구나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아쉽지만 8박10일 간의 북유럽 3개국 방문 여정은 막을 내린다.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정 들었던 의원님들과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북유럽 3개국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윤미경 의원

2019년 8월7일 의왕시의원, 광명시의원들과 함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선진국 북유럽 3개국의 여성정책, 아동복지, 교육복지, 노인복지 시설 등 방문하여 다양한 선진 사례 및 문화를 배우고자 벤치마킹의 길에 올랐다.

□ 노르웨이

북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장 경제적으로 윤택한 노르웨이의 사회보장을 배우고자 베르겐 사회복지기관(비 미션)을 방문하였다

베르겐 도시선교회 가치관은 단체, 집단. 함께 라는 비전으로 외로운 사람들, 갈 곳 없는 사람들, 둘이 아닌 혼자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위하여 나, 너, 우리와 함께, 같이 한다는 의미이다.

비미션의 주요 활동이 홈리스(노숙자), 마약중독, 매춘, 강간, 난민, 이민자들에게 사회 적응을 하도록 교육과 법적, 제도적 지원으로 무료급식, 무료 숙박, 무료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동(0~3세)를 위한 개방형 유치원에서는 부모의 모든 책임하에 아이와 부모가 함께 휴식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4~16세의 아동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난민아동 등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언어교육, 직업 훈련, 진로고민)을 운영으로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여하고 있다.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은 정부보조금 70% 민간후원 30%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자원봉사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원봉사자와 후원자의 중요성은 도시선교회가 매일 운영하는 식당과 카페에서의 잘 보여주는 것 같았다 이 곳을 찾은 후원자는 자연스럽게 1인이 2인분의 식비를 결제하여 어려운 사람들 언제나 방문하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대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단체에서 매년 1~2번정도 하는 일일 찻집과 비슷하지만, 이 곳의 자원봉사자들은 커피 한잔도 사서 마시는 것은 물론 어떠한 혜택이나 식비, 교통비도 전혀 없다. 자원봉사는 그야말로 재능기부이며 순수 봉사일 뿐이라고 하며 책임감 또한 최고라고 자랑한다. 자원봉사를 대하는 그들의 마음이 부러움은 어쩔 수 없었다, 복지선진국의 한 면을 볼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 스웨덴

북유럽의 광공업국이자 선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 대국 스웨덴 방문이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하자마자 노인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알려진 스웨덴의 노인요양원(구리고덴)을 찾았다

개인적으로 스웨덴은 1992년 “에델개혁”에 따라 노인복지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했다는 점. 이로 인해 과거에는 대부분 대형 시설이었던 양로원 또는 요양시설이 소규모로 전환되어 운영된다는 점이 시의원으로써 더욱 관심이 가는 곳이었다.

구리고덴도 노인들의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지자체에서 거주하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본인, 가족, 요양원 담당자가 협의하여 생활패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고 삶의 질을 유지 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었다.

수술치료 후 또는 치매 치료를 위해 단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2주정도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혼자 생활 할 수 없거나 도우미

과견으로도 케어가 안 될 경우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협의체에서 인증을 받아야만 이곳 장기거주시설(permanent stay)로 입소할 수 있으며, 입소비용도 개인들의 연금으로 충당하고 시설운영에 관한 운영비 및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이 곳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이동보조기구(personal lift)로 침실 위 천정에 리프트 조정 레일이 설치되어 있어, 침대, 주방까지도 혼자 이동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눈이 띄었다

결국 이러한 시설이나 운영을 지자체가 의사, 사회복지사 등 연계하여 직접 운영 방식으로 지속 개선한 결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치매, 노인질병 증가로 가정에서 요양원으로 가야 하는 가정적, 사회적 현상이므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핀란드

핀란드가 전 세계에서 국민 행복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힌 비결을 찾기 위해 가족복지 실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에스포시티(Espoon) 가족사회과를 찾았다

가족사회과에서는 핀란드 사람의 복지와 세금 생각을 “모두가 각자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세율이 높긴 하지만 그만큼 혜택이 돌아온다” “사람들은 기초생활을 충족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소개한다. 왜 국민의 행복도가 높은지 알 수 있는 말이었다.

시에서는 각 가정마다 전담사회복지사가 1명씩 전담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며,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상담인력을 결정하고, 외부자원봉사자(대학 또는 전문교육을 마친 활동가, 직업학교 졸업생들)로 구성된 가족 사회활동가 (social workers)들이 가족 문제 사전예방을 위한 전담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보육,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갈등이나 반항 등으로 부모와의 갈등이 있는 부분까지 전반적인 분야를 시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었다.

핀란드에서도 타 복지선진국과 더불어 사회보장을 공공 부문의 역할을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보장 대상을 저소득층뿐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노력이 돋보였다.

북유럽 복지선진국 3개국의 복지시설 방문을 하면서 복지선진국가에서 추진하는 아동, 여성, 노인 등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우리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다만, 사회복지가 왜 필요하지, 복지 수혜자에 대하는 그들의 생각은 우리가 배워야 할 덕목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복지를 선별적인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확대하여, 소외계층만 아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례분석과 과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성지은·이유나)
- 리빙랩길잡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미래 꿈의 도시로 탈바꿈하는 고깃배 항구 칼라사타마 : 중앙일보(정경민)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2019 세계국가 편람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출처

- 주노르웨이대한민국대사관 : <http://overseas.mofa.go.kr/>
- 주스웨덴대한민국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
- 주핀란드대한민국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fi-ko/index.do>
-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스웨덴 개황, 2009. 7.) <https://terms.naver.com/>
- 유럽네트워크 : <https://enoll.org/about-us/>
- 나무위키 : <https://namu.wiki/>
-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
-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erviceInfo/statisInstitution.do>